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4

2015. 9.20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오늘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2 | 교회 절기와 추석의 역사 |
| 3 | 규정집 진행 소식 |
| 4 | 파송교회 탐방 |
| 6-7 | 27주년 기념 지상토론 |
| 8 | 아기나들이 |

교회 일정

- | | |
|----------|-----------------------|
| 9/27(주) | 추석 |
| 10/4(주) | 성찬주일, 1차 항존직 선거(공동의회) |
| 10/11(주) | 2차 항존직 선거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글함글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둔 가을날. 그러나, 그 뒤에 곧 다가올 겨울이 힘겨운 이웃들이 곳곳에 있으니, 이 연탄 한 장의 온기라도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될 터이다. 지난 9월 12일, 섬김과 나눔 구제사역팀의 연탄 지원 및 배달행사.

교회 절기와 추석의 역사

기상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 하늘이 어느 날부터 미치도록 높아지고, 가을 햇볕이 눈부시더니, 추석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한가위를 맞아, 기독교인들에게 추석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추석은 삼국시대 이래 민족 고유의 명절이었다. 민족 고유명절에는 설과 추석만이 아니라 단오, 동지선달, 정월 대보름과 같은 날들도 포함된다.

즉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적된 전통들이 명절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나라에서 절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공휴일로 지정한 설과 추석은 전 국민에

게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여러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들에는 역사적 변천에 따라 특정한 종교의 색깔이 입혀지기도 했다. 설날과 추석의 차례 의식은, 그러한 절기의 전통 위에 유교적 제례 의식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종교적 의미와 속성이 풍속의 하나로

지켜져 왔다. 기독교의 전래 이후, 차례라는 이름의 유교적 전례를 지켜왔던 대부분의 가정에서 성묘와 제사상 앞에서 조상의 혼을 부르고 그에 절하는 행위는 곧 내 앞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까닭에 가정마다 많은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 2면에 계속

2015년 항존직 선거 그 두 번째 막이 열린다

역량 있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2015년 항존직 선거가 순항 중이다.

지난 8월말 진행된 추천투표에 이어, 지난 9월 13일에는 당회원 공천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인 목표 인원인 장로 10명, 안수집사와 권사 각각 20명의 2배수에 해당되는 후보들에게는 만일 선정될 경우 직분에 순종할 것인지를 묻는 본인 의사확인 절차가 거

쳐, 10월의 공동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10월 4일의 1차 투표와 11일의 2차 투표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그리고 10월 18일 최종 선거 결과가 공고될 예정이다.

2014년 제정된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는 최종적으로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특히 임기제인 장로직의 경우, 현재 시무 장로들 가운데 2~3년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아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할 역량 있는 신임 장로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중이다.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실한 투표를 기대한다.

함글함글

> 1면에서

교회 절기와 추석의 역사

물론, 이와 같은 전통 문화와 외래 종교와의 갈등은 한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전통적인 풍습과 교리, 또 독특한 상황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명절로 기억하는 추수감사절도 사실 아메리카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인들에 의해 기념되기 시작한, 오래지 않은 절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석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추석의 전통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는 절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명절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은 구약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하셨다. 레위기 2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절기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의 명절' 혹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라 일컫지 않고 "여호와와 그의 명절" 혹은 "나의 명절"이라고 선포하셨다는 점이다(23:2). 즉,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절기라는 점이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1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한다. 초막절은 추수를 맞아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 광야에서 맛았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감사하며 즐기는 명절들이었다. 특히 초막절은, 칠칠절 때부터 수확하기 시작한 추수를 모두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동안 초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절기로,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일치한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형제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린다.

유대와 다른 기독교의 명절

그러나 이종에서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안식일뿐이다. 예수님의 시대와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절기들은 유월절과 같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절기와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특정한 날을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선언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기독교의 교회력에서 지켜지고 있는 대부분의 절기들도, 사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 추수감사절도 그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에 따라, 차츰차츰 절기로 기억되기 시작된 것이다. 추수감사절이

17세기 초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던 청교도들이 흑한을 건디고 살아난 이듬해부터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추석을 맞는 새로운 마음

이미 신라시대에 가을 추수를 끝내고 풍성한 햇곡식과 과일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한가위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바탕에는 특정한 종교적 전통보다는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가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을 터이다. 흔히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추석 차례 역시, 학자에 따르면 불교적 의식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듯, 한가위의 전통도 은혜의 감사에 뿌리가 있는 셈이다. 추석을 맞은 우리가 혹시 전통적 명절을 기독교적으로 지내는 것에 같등이나 모순을 느낀다면, 이는 전지전능하고 태초부터 여러 방식으로 백성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잠깐 잊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우리에게 추석은,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명절일 터이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9

聖幕器具 (성막기구) 中

陳設餅床 (진설병상, exhibition bread table)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3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큰 잔치 때 상위에 음식을 벌여서 놓는 일이며 排設(배설)이라고도 한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성소의 떡 상위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일이며 정해진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참고로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로운 떡으로 바꾸고 묵은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 한편 진설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섯 개씩 두 줄로 모두 12개가 진설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陳(펼친, 베풀진, 묵을 진): 언덕 및 작은 산을 뜻하는 阜(언덕 부)의 변형체 阝(좌부 방)에 동쪽이나 퍼진다는 뜻을 지닌 東(동녘 동)을 결합시켜 '수확한 농작물을 말리기 위해 언덕에 펼쳐둔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設(배풀 설): 말과 글을 상징하는 言

(말씀 언)에 도구 또는 무기를 뜻하는 殳(몽둥이 수, 창 수)를 결합시켜 '말이나 글의 지시에 따라 도구를 이용, 물건을 만들어 베풀다'는 의미의 글자가 되었다.

★餅(떡 병): 밥 또는 먹는다는 뜻이 있는 食(밥 사, 먹을 식)에 방패를 줄지어 세운 모양의 并(나란할 병)을 합쳐 '밥을 쥘어 같은 모양으로 나란하게 만든 음식이 떡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床(평상 상): 집이나 마룻대를 상징하는 广(집 엄, 엄호 엄)과 권 판자를 뜻하는 木(나무 목)을 합쳐 '집안에 권 판자로 만든 시설이 평상이다. 이처럼 편리하게 쓰는 도구가 상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牀으로 쓰기도 한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4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늘에 닿았을 사랑나무 아이들 힘준 손 모아 기도 손 만들어주는 교사들의 섬기는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교회 규정 완비 멀지 않았다

올해 말 규정집 발간 예정

주님의교회의 살림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 정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오랜 산고 끝에 2011년 교회 정관이 확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된 후, 정관에 따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무 영역에 적합한 시행규칙을 만드는 일이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박원호 담임목사를 팀장으로, 박대길 장로를 부팀장으로 한 규정 태스크포스팀에는 조광민 목사, 서기장로, 김창안, 박종규, 박종순, 김성구, 정종국, 지유철 장로 등이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김완중, 신정웅 장로가 고문으로 자문을 맡고 있다.

교회 정관 제27조에는 “본교회의 모든 업무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위원회와 기관은 별도로 업무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 2항에 “행정장정은 본 정관으로 대체하고 종전 행정장정의 제 5-13장의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이 제정될 때 까지 계속 적용한다”과 하여 완비되지 못한 기존 규정들을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행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많은 규정이 아직 미흡함에 따라, 교회의 관리 및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담당자의 개인적 주관에 따라 집행됨으로 인해 객관성, 일관성, 효율성의 결핍은 물론 관리의 위험까지 노출되기도 했다.

규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제정된다. 즉, 교회법상의 체계를 존중하여 총회헌법, 시행규정, 노회규칙을 상위법 체계로 운용하고, 주님의교회 규정 체계는 “정관 > 규칙/규정 > 지침”으로 체계화한다. 교회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예, 당회 운영규정 등)은 팀에서 기안하여 당회 의결을 받아 제정하도록 하고, 각위원회 및 사역조직에 관련된 운영규정은 담당위원장이나 담당 사역장로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태스크포스팀이 협조하여 당회의 의결을 받아 제정토록 한다. 규정의 제정은 교회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예, 재정위원회규정, 당회 운영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등) 전체 목록화 된 규정을 시기별로 체계화 하여

담당 사역장로와 상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물론 너무 상세한 규정으로 인해 사역활동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급적 해야만 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원활하고 바른 역할을 격려하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권한과 책무를 확실하게 하여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만 하는 일에 지나침이 없도록 활동의 지침을 제공토록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 20개의 규정이 완비, 혹은 검토중이며, 2015년 말 그간의 성과를 담은 규정집이 일차 간행될 예정이다.

함줄함줄

사역탐방

연탄 지원 및 배달행사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국민 난방연료로 사랑받았던 19공탄이 이젠 먼 옛날 추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는 연탄에 의지하여 겨울을 나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9월 12일 우리교회 부설 (사)섬김과나눔의 구제사역 팀에서는 이들에게 연탄지원 및 배달행사를 가졌다. 종전에 지원해왔던 거여 마천동 쪽방 촌이 철거됨에 따라 문정2동 화훼마을 쪽방 촌 3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3장씩을 지원하게된 것이다. 연탄 1장 가격은 운반비 포함 600원이지만, 공장 직거래로 낮춘 단가 550원에 계약하고 안수집사회에서 배달을 담당해 줌으로써 908장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토요일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창화 목사의 기

도로 14명의 봉사자들이 교회승합차를 이용, 현장에 도착하여 땀 흘려 릴레이식 배달을 실시했다. 노봉옥 담당 장로와 함께, 12명의 안수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활동을 통한 감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뜻 깊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마을 통장과 노인 회장에게 점심식사까지 대접하고 정성어린 전송을 받으며 돌아오는 봉사자들의 표정은 매우 행복하고 뿌듯해 보였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쪽방 촌 주민들의 따뜻한 아랫목을 상상하면서 우리마음이 먼저 훈훈해지는 초가을이다.

노대홍 안수집사 / 구제사역팀장

주님의교회 규정 정비작업 진행 현황

번호	규정 명칭	구분	추진 사항	비고
1	당회운영규정	개정	재검토 보완 중	정책당회 상정 예정
2	사무국운영규정	개정	당회 결의 (15.6.15)	시행 중
3	사무국업무분장표	개정	“	“
4	녹음기록물운영관리시행규칙	제정	“	“
5	임용계약서	개정	“	“
6	재무회계규정	제정	당회 결의 (14.12.)	시행 중
7	상례규정	개정	당회 결의 (15.6.15)	시행 중
8	자산관리규정	개정	당회 결의 (15.7.13)	시행 중
9	교육위원회운영규정	제정	검토 완료 (15.8.9)	당회계류 중
10	장학위원회운영규정	개정	검토 완료 (15.8.16)	“
11	음악분과위원회규정	제정	검토 완료 (15.8.16)	“
12	지휘자 처우기준 및 초빙계약서	제정	“	“
13	결혼예식운영규정	개정	검토 완료 (15.8.30)	“
14	결혼예식장 사용 신청서	개정	“	“
15	함줄함줄발간규칙	개정	검토 진행 중	
16	선교사파송규정	개정	“	
17	직원인사규정	개정	“	
18	선교위원회/사역조정위/위탁사역위	개정	필요시 검토예정	
19	선거관리규정	기완료		시행중
20	감사 규정	기완료		시행중

파송교회 탐방 | 대구신광교회 김화수 목사

세상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

“

그동안 많은 목회자가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한 후 파송되었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주님의교회에서 파송되거나 거쳐 간 목회자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서로 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대구신광교회 김화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

교회 건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이 1998년입니다. 그래도 아주 현대적이어서 지금도 새로 지은 건물 같지요? (웃음) 건물은 아주 현대적이지만, 올해로 64주년이 되었으니 환갑을 넘긴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37년간이나 원로목사님이 시무를 하며 단단히 다져진 교회이지요.

대구신광교회는 1951년에 세워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암울한 그림자만 가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지요. 지금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 특히 대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경향은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자가 8%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전통 있는 교회를 이끌어 온 선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셨는지, 부임할 때 미루어 짐작이 가더군요.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임 처음부터 장로님들과 매월 두 차례 큐티를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면을 나누는 일에 익숙지 않은 경상도 어르신들인데도, 처음부터 잘 협조해주셨고 그 나눔을 통해 많은 변화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 전체적으로도 교인들의 큐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구역들은 SNS 모임을 통해 매일의 큐티를 나누고 있지요.

특히 역점을 둔 목회 방향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1대 1 제자양육’을 통해 평신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양육의 양육자를 선별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1대 1 제자양육’을 제시했을 때, 끼리끼리 뭉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반대도 없지 않았 습니다. 첫 제자양육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뽑게 했더니 오해도 풀리고 대상자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의 다른 교회에도 이 양육 시스템을 전달하고 심어주었습니다. 큐티도 다른 교회에서는 전교회적으로 다 끌고 가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주님의교회를 거쳐서 뉴질랜드에서도 목회를 하셨다면요.

주님의교회를 섬기기 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중에 이 재철 목사님의 권유로 주님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6년을 시무하고 나서는 뉴질랜드 오uckland한 인교회의 요청을 받게 되었지요. 가족과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가까이서 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도 모실 것을 계획하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애비야, 사람이 원하는 곳 말고 하나님



대구신광교회 김화수 목사. 오래간만에 만난 주님의교회 함줄함울 기자들과 오랜 시간 추억과 함께, 목회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나누었다.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갈등 속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uckland교회는 당시 교회가 분열이 되어 교인들 사이에 상처가 있던 상태였기에 목회에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지요. 2년 정도 지나니까 교인들과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다른 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 아이들 교육공간과 분리되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적극 나서서 교회건물도 구입하게 되었지요. 만 10년을 시무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대구신광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부임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훈련받은 영향이 있었는지요?

오uckland에서도 그랬고 이곳에서도 교인들의 개별적 헌금 상황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물품을 기증하는 것도 누가 했는지 광고하지 않지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의교회에서 익힌 자세 그대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에 집중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남달라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재철 목사님 목회스타일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

도 듣긴 하지만, 저는 다만 주님이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만 열심히 고민할 뿐입니다. 목사는 물질에 대해 청빈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철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예전에 주님의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의 방식을 생각하고곤 합니다. 목사가 좀 포기하면 수월하지요. 주님의교회는 목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배운 곳입니다.

앞으로 중점을 두려는 목회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을 큐티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려 합니다. 좁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제한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 인정해줄 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지요. 말씀 묵상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함줄함울

오히려 사랑받는 우리, 사랑나무 수련회



메르스의 여파로 사랑나무수련회가 무더운 여름을 뒤로한 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수련회로, 9월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랑나무실과 다목적 체육관에서 은혜롭게 사랑나무 아이들 모두 참여하여 은혜롭게 열렸다. 2주전 부터 선생님들의 릴레이금식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시작되었다.

해맑은아이들을 모처럼 야외로 데리고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맑은 하늘과 넓은 세상을 만끽하게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우천으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다행히도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아시리라 믿으며 하나님 뜻이 있으

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를 드렸다.

수련회뿐 만 아니라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나 토요일 체육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해맑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듯하지만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눈망을 속에 오히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주님께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한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기를, 끊임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세상으로 한걸음씩 내딛을 수 있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과 두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주시옵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김정애** 집사/사랑나무팀

진중 세례 예식을 다녀와서



파란 하늘이 가을 냄새를 물씬 풍기던 초가을, 9월 12일 토요일 이른 아침 신병교육대에 세례식을 위해 떠나는 대형버스에 32분의 교우들이 탑승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 부터 건강과 웃음이 넘치고, 이날을 인생 또 다른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경춘고속도로에 제법 풍기는 가을 내음에 뿌듯해하며 계절만큼이나 여유롭게 여정은 시작됩니다.

신병들과의 만남, 세례를 위한 만남은 행복이 있고 그 행복에 묻혀 오늘도 내일도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준다는 느낌으로 충만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2사단 을지전망대로 오르는 길 만만치 않았지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양구 해안 마을 편지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정상에서

의 전망 또한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논밭들은 아기자기한 가을것이의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니, 가슴을 확 트이게 해주는 수려한 경관 속에 안타깝게 허리가 잘린 우리 산하를 보는 마음은 갑갑하기도 합니다. 갈 수 없는 그 땅, 참 안타깝습니다.

신병들과 예배를 드리며 세례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아름다운 날, 신병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함께 한 청년부 자매들의 위십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사라서 은혜로움이 두 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맑은 공기에 순수함과 갈바람 타고 높은 하늘의 멋진 뭉게구름 벗 삼아, 행복해서 웃는 추억의 깊이를 또 하나 가슴에 새깁니다. 함께여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요.

신형섭 안수집사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21

정신여학교 폐교

1930년대에 들어 일제는 기독교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1935년에는 학교장들을 강제로 신사참배 시켰다.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조선에서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학교를 조선인에 인계(引繼)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한편 1938년 여름 정신여학교 루이스(M.L.Lewis) 교장이 신사참배 거부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교를 당했다. 정신여학교 폐교 소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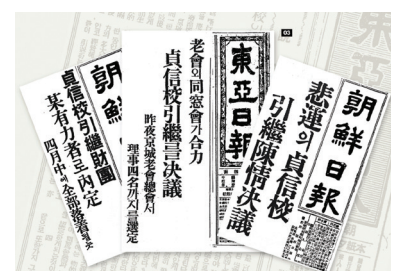
전해지자 학교를 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중등교육을 담당해 온 정신여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정신여학교를 구하자 - 다시 돌아보면, 정신여학교는 50여 년 전에 창립되어 이 땅의 여자교육의 요람이 되었고 춘풍추우(春風秋雨) 반세기에 수백(數百)의 재원을 양성하였다. '정신'마저 어찌 잃을

것이라 (재학생 3학년 광복신, 동아일보 1938.10.26)

1938년 11월 서울노회와 동창회가 협력하여 학교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때 동창회측 이사로 김필례, 유각경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다른 개인들도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참여하면서 인수의 문제는 쉽게 타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태평양 전쟁으로 1941년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고, 정신여학교는 적산(敵産)으



정신여학교 인계를 알리는 신문 기사

로 인수되어 친일 재단인 풍문학원에 합쳐지면서(1945.3.19. 매일신보) 1945년 3월 폐교되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③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그 세 번째로 교회 안의 여러분들의 글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항존직 선거철이어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했고, 배열은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이 글, 또는 다음 주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호에 수록하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①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에 대한 배경사, 철학, 정신, 신학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봅니다.

②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③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④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⑤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⑥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잘 하는 것 나열보다 부족한 것 돌아보기

‘교회 안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진정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되심을 알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지체를 서로 돌보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일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드러내 놓고 싸우고, 부패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 스스로는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자만하고 우둔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교회도 어느새 하나님의 가치기준을 슬며시 밀어 놓고 인간 중심화 된 주위 교회들과 비교함으로써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무기명 헌금, 50:50 구제/선교, 임기제 등등의 제도(원칙?)를

아주 우월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둘째, 지체들 간에 이해/포용하기 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불화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셋째, 바리새인적인 생각 (헌금, 봉사, 직임 등)으로 교만하다.

넷째, 우리 교회에는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그럼으로 인해 교인들이 몰두해야 하는 믿음의 진수가 약화되는 느낌도 없지 않다.

며칠 전 동네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이다.

초등학교 4~5학년 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그날 하루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 사건들을 부지런히 엄마에게 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한 손에 든 핸드폰에 마음과 시선을 뺏긴 엄마는 건성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 보였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와의 시간 속에서 아이에게 집중하기 보다는 한

손에 든 핸드폰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건성으로 듣는 척 하며 내 손안에 있는 정보, 지식, 노하우 등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양이었다.

올 여름 평창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사이에 막혀 있던 장애물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된 시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나 (주님의교회)를 돌아본은 우리의 몸부림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나열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숙고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김익명 권사

주님의교회 참 좋은 교회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이전 교회들과 다른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일단 교회 이름부터 좋았다. ‘주님의교회’. 교회 건물이 아닌 학교의 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린다는 점. 왠지 좋고 신선한 느낌이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아무도 아는 분도 없이 멀뚱하게 서 있다가 마시는 커피한잔, 주차공간

이 넓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교회에 왜 이리 멋지게 보이는 분들도 많은지.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를 세운 분들이 몇 가지 기도로 정한 서원을 알게 되었다. 50대 50,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임기제, 무기명 헌금. 하나하나 다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

고,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가라는 생각을 했다.

무기명헌금을 드리는 건 참 떨리는 일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과 나만이 알고 드리는 일,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방법이 없는 것임을.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참 좋다.



수련회를 항상 좋은 곳들을 빌려 갈수도 있고 학교를 빌려 사용하니 세입자의 불편함도 있지만 세입자의 특권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쉽지만, 고압계도 우리의 주인인 정신학원은 힘든 여건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 임기제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이 좋은 점을 받아들여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항상 기도 에 힘써야 됨을 깨우쳐주는 제도인 거 같다. '50대 50'은 멋진 제도이다. 이웃을 위해 반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만약 서원을 6:4로 외부를 향

해 더 많이 쓰겠다고 했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들은 딱에 관련된 제도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정직하게 드리려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주님께 거저 받은 재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재물만 드리며 만족하고 나의 시간은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은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교회의 건물이 없지만 건물 만들지 않고 그 재물을 어떤 주님의 선

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교회 공간 중 어느 정도가 이웃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건물의 주인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도 못하면서 주인을 향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제와 선교에 많은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입고 먹을까를 구하는데 시간은 많이 보내나 그 비슷한 만큼(50대50) 구제와 선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는지...

주님의교회 구성원들이 좋은 제도 가운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의교회 참 좋은 교회이다.

김익명 집사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보일 것들

주님의교회에 처음 등록한 것이 1996년이니, 벌써 만 이십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내겐 주님의교회가 처음 다니는 교회였고, 다른 교회에 다닌 경험이 없어서, 내게 주님의교회는 ‘교회’ 그 자체이다. 즉 다른 교회의 시스템이 어떤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해 볼 자료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 주제의 기고를 요청 받은 후, 처음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주 곤혹스러웠지만, 곧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 세울 수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관점이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주님 외에는 주님의교회의 모든 것을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방송부, 12단계, 예친사, 안내부, 겨자씨인도자 등으로 섬기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 것을 여기에

적는 것도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다. 다만, 부족한 가운데 함께 고민해 보자는 함줄함을 기획에 공감하기에, 교회 안에서 본 생각을 몇 가지 두서없이 나누어보려 한다.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은 교회 건물 무소유와 헌금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교회의 건물로 성장의 지표를 삼고, 성도의 헌금으로 온갖 소문이 파다한 다른 대형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러한 정신이 제도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려는 초심이 있었을 것이다.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려다 보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정신학원과의 관계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사정으로 노회의 변경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의 기본 정신은 정신학원을 잘

섬기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종합운동장 주변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정신학원 터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가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과 어떤 관계를 갖고 가야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헌금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생각이 든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가 이러한 정신과 이어지는지, 교인 각자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신앙생활로 인도되고 있는지, 교구와 겨자씨 모임, 활동 등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주님

의 교회로 오시는 성도 분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지, 위의 사항들이 교회의 자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교회 이벤트, 프로그램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의 계획과 목표로 이어지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

간혹, 이런 가장 중요한 정신을 놓치는 경우를 간혹 발견한다. 다른 팀에서 쓰는 예산에 자극 받아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소모품이나 음식물을 구입할 때 약간 낭비적인 관행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를 누가 일일이 지켜볼 수 없고 서로를 경계하기 어려워서 넘어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마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교회 성도로 바른 것인지 뚜렷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임익수 안수집사

진중에서 온 편지

군선교 전선 이상 없도록

조국의 창끝, 산악의 방패 을지사단 신교대 교회를 맡고 있는 군종장교 중위 염규남이 주님의교회에 감사편지를 올립니다.

교회 사역에도 분주하신 홍성욱 목사님의 인솔로 우리 사단 신교대 교회에 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쓴 것과 같이 주님의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신교대 교회 세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기쁩니다.

현재 군선교 현장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신병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해보면, 일부 기수에서는 종교 자체가 없는 병사들이 대표적인 세 종교를 합친 숫자와 맞먹는 상황입니다. 하비 콕스의 용어만 빌리자면, 청년세대에게 세속화의 영

향으로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교회에서 사단 신교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일은, 사막화를 막는 나무 심기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아니면 또 어디에서 청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일에 더욱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군선교 전선 이상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도 미약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2015년 9월 14일

풍차가 돌아가는 인제군 북면에서

염규남 올림

아기나들이



박래인 아기 2015년 9월 20일 3부 예배

1. 몸과 영혼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2. 사랑을 많이 베풀며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가정, 교회,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빠 박민제, 엄마 배지성 2014년 12월 27일생

‘배달의 함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님의교회의 참‘좋은 선교지’, <함줄함울>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교회 밖 어떤 분이시든, 주소와 보내드릴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시면, 나올 때마다 저희 함줄함울팀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곧 신청하세요!

함줄함울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알립니다

- **2015년 향존직 선거를 위한 투표권자 명단 확인**
투표권자 : 6/28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
장소 : 교회1층 복도 명단 비치
- **입교 및 세례교육**
일시 : 9/20~10/11(4주) 호후 1:30~3:00 3층 초등부실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문답 : 10/18(주일) 오후 1:00 초등부실 및 수련실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 (010-6823-5216)
세례예식 : 10/25(주일) 3부 예배시
- **추석명절 휴무 안내**
일시 : 9/27(주일)
주방 국수 봉사, 도서실 쉽니다.
-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1층 로비에 비치
- **주차를 금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과 청소년사역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학기 중 평일에는 학원의 면학 분위기 유지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내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단계 성경공부 개강 및 추가 모집 (5단계)**
개강 : 9월 16일(수) 오후 7:15 대예배실
모집 : 9월 6일(주일), 9월 16일(수) 1층 안내데스크
- **임마누엘(4부) 찬양대 모집**
주일마다 기쁘게 섬길 분
문의 : 이성규 집사 (010-5503-5512)
- **죽배달 거여, 마천동 봉사자 모집**
봉사일 : 매주 월요일 오전 10:30~오후 12:30
문의 : 이형규 안수집사 (010-3711-3940)
- **중보기도부 사역자 모집**
양육클래스 이수 필수
문의 : 조균실 권사 (010-4736-9485)
- **2015년 수험생 학부모 기도모임 개강**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사랑나무실
문의 : 강현규 목사(010-2985-7775)

Bible Story

5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예수, 예수, 오직 예수!

1. 왜 우리에게 예수가 문제인가?
2.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고백했는가?
3.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4. 예수로 새 삶을 사는 길
5. 빈 무덤의 의미
6. 예수와 종교 다원주의

개강 9.16(수) - 10.21(수), 저녁 7:15, 대예배실

www.pcltv.org ▶ 추가모집 2015.9.9 - 9.16 ▶ 문의 _ 홍성욱 목사 010-9431-9910